

■연합회동정

2002년도 2, 3차 환경관리 실무자 교육 실시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5월 6일에 서 9일까지, 20일에서 22일까지 각각 3일간 2, 3차 환경관리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및 환경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2차 교육 'Dioxin, NOx, VOC 악취제거 최신기술 및 현장운영관리 실무'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의 발생 및 현장실무 핵심기술에 김삼곤 기술사(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공학과 환경연구원)가, 다이옥신의 제어공법 현장실무에 대해서는 전금하 기술사(이엔비테크놀러지 기술본부)가, 세계 각국의 다이옥신 처리 기술, 질소산화물 처리기술, 배연탈질 장치의 종류, 아황산가스 처리기술은 박성복 기술사(한국환경기술단 대표이사)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이론적 배경, VOC 제어공법, 악취 제어기술에 대해서는 임백규 기술사(청도환경 대표이사)등이 현장실무에 맞는 자세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업무향상을 꾀했다.

이어 20일에서 22일까지 실시한 3차 교육에서는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대원 박사, 포스코개발 임남재 기술사,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박종복 과장, 범한엔지니어링 이경수 이사 등이 '질소·인 동시제거 SBR 최신기술과 고도처리 현장 핵심실무 및 운영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이상호 회장은 "현장실무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강의 등으로 환경기술 전문인으로 향상할 수 있기를 연합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무향상을 위해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인천협의회

수질환경보전법 법규 해설 교육 실시



인천협의회(회장 김영환)는 지난 5월 9일 인천시청 대강당에서 2002년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법규해설 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및 환경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물관리과장의 자세한 법규해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의 공단배출업소 단속이양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배출업소 환경기술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환경월드컵을 위해 환경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해 국제행사 대비에 따른 회원들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울산협의회

정기월례회 개최



울산협의회(회장 이종영)는 지난 4월 26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정기월례회 및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환경기술인 및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월례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 행사에서는 코오롱유회의 선진 악취방지기술

발표로 시작, 국제적인 행사 월드컵을 대비한 시기적절한 환경기술인 교육으로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이어 협의회 고문변호사로 양영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양 변호사는 앞으로 울산협의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법적인 부분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할 예정이다.

울산협의회는 "양 변호사는 울산지점 환경담당 검사출신으로서 악취저감 및 기업체 자율환경관리를 주도한 인물

이며, 특히 환경담당검사 시절의 업무경험을 살려 지역 환경발전과 환경기술인의 권익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문 변호사의 위촉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환경인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해 회원들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 ■경기도협의회

### 임원 단합대회 실시



경기도협의회(회장 윤한규)는 지난 4월 14일 충남 예산에서 임원 및 가족 40여명이 동반한 가운데 임원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덕숭산의 산행과 함께 족구시합, 자연체험 등을 통해 회원들간 친

목을 도모했다.

윤한규 회장은 "자연의 소중함이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는 4월에 임원과 가족들이 딸기농장을 견학하고 산행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연체험과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북협의회

###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 설명회 개최



전북협의회(회장 박진수)는 지난 4월 30일 150여개 회원사의 환경기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환경보전법 및 단속권 이양에 따른 전라북도의 환경정책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및 월드컵경기대비 특별단속에 대해서는 박진수 회장이, 전라북도의 환경정책방향에 대해서 한웅재 사무관이 자세하게 설명해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이와 함께 김연석 협의회 감사가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임원연수회 개최

전북협의회는 지난 5월 11일에서 12일, 1박2일로 김제시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2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상반기 행사중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회 하반기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토론했다.

또한 환경기술인의 사명감과 권익보호, 환경기술지원활동과 환경정보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 ■대전·충남협의회

### 수처리환경기술 세미나 및 환경법규 교육 실시

대전·충남협의회(회장 김금중)는 지난 4월 19일 금강환경관리청 3층 회의실에서 수처리환경기술 세미나 및 개정



환경법규 설명회를 가졌다.

회원 및 환경기술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수처리환경기술 세미나에서는 세명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청림환경 C&C 대표이사인 이성호 전 연합회 회장이 '오·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기술'에 대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이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개정환경법규를 자세하게 설명해 회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경남협의회

개정법 해설 및 환경신기술 설명회 개최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는 지난 4월 23일 개정법해설 및 환경신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및 회원사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공단전시장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 창원대학 배성근 교수의 환경정책동향 및 신기술 소개로 회원들의 최신기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청 환경보호과 오일환 지도계장(기술

사)이 수질환경보전 개정법 해설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회원들의 업무향상을 도왔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공단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업무가 환경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전달해 업무혼선을 예방하였다.

한편 본 협의회 회장단과 회원사는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1세기 영남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된 물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18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역간의 의견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발족 및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의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날 함께 동석한 이종영 울산협의회장, 이국두 연합회부회장과 함께 지역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증진 및 상호정보교류, 환경기술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경북동부협의회

임원회의 개최



경북동부협의회(회장 임종찬)는 지난 5월 6일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방제훈련 실시 건, 관계기관과 교육, 훈련관련 내용 및 진행상태 최종검토, 회의 후 출장소 방문 관련 내용 협의, 공문발송 및 관련내용 홈페이지 게시, 월례회, 6월 환경의 날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수질환경보전법 해설 및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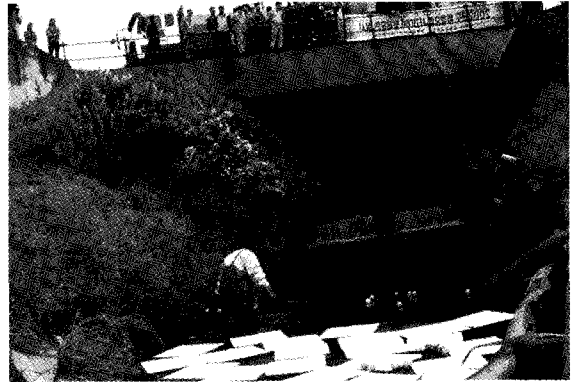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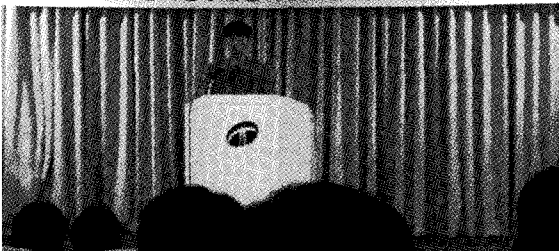
경북동부협의회는 지난 5월 16일 포항 근로자복지공단 2층 회의실에서 5월 정기월례회 및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회원 및 환경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월례회1부에서는 포항환경출장소 박광선 소장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해설과 유독물안전관리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이어 포항철강공단내 구무전에서 지역 인문사들과 하천 주변공장 직원들의 관심속에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협의회장과 포항환경파출소장의 사고개요 및 현장상황 설명과 함께 유류유출 사고 현장에서 직접 유류확산방지 조치를 취했다.

### 5월 월례회 실시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대구경북협의회

## 2002년 전반기 법규 해설교육 실시



대구경북협의회(회장 도주환)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부하수처리장 2층 회의실에서 '2002년 환경관련 법규 및 수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 및 환경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교육은 최근 수질환경보

전개정법과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지하채로의 단속권이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마치고 회원들은 서부하수처리장 시설 중 고도처리 등을 견학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참석자에게 수질관련 및 토양환경보전법규책을 배포했다.

